

# ‘강진청자문화제’ 명칭 바꾼다

주민 70% 찬성 ‘강진청자축제’로 … 郡 새로운 도약 나서

“역사성·대중성 살린 종합문화축제 기대”

‘흙·불·그리고 인간’이라는 슬로건과 청자라는 문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국내외 청자제작 청자로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문화제’가 ‘강진청자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지난 7일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삼현)는 ‘청자문화제’를 ‘청자축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강진군민 501명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응답자)의 70.4%가 명칭변경에 찬성, 강진청자축제로 거듭나게 됐다.

명칭변경은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되살리고 축제의 두 기둥인 역사성과 대중성을 살려 청자축제를 종합문화축제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1973년 최초로 ‘금릉문화제’란 이름으로 축제를 주최해 28년 간 개최해온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청자문화제’로 명칭변경과 함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을 역사성을 복원시켜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명실상부한 제37회 강진청자축제로 승화 시켜 청자꽃 강진에서 개최된다.

강진청자축제는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왕’이라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축제의 프로그램을 기획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만을 위해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들로 구성된 ‘축제경영팀’이 있어 전문적인 축제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인구 4만명의 작은 도시에서 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

제로 선정되는 등 도자예술의 종주군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회생 가능성은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강진군은 지난해 열렸던 제 13회 청자축제 기간동안 68만명의 관광객과 21억여원의 직접, 72억여원의 간접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둔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태극 애호박’ 인기

광산구 동곡 태극애호박 작목회(회장 이종만)가 출하하는 ‘태극 애호박’이 겨울 성수기를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생산된 애호박은 능률 중앙물류센터와 서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타제품보다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

(광산구 제공)

## 전남 쌀 서울서 설맞이 판촉

농협전남본부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서

불법 조업 나포 중국어선

4척 중 1척 ‘무허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9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설맞이 전남쌀 판촉행사를 갖는다.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6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해남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과 농식품부의 라브미 마크를 획득한 나주 동강농협의 ‘드림생미’, 남평농협의 ‘왕건이 탑내쌀골드’, 지난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강진농협의 ‘프리미엄호평’, 도암농협의 ‘봉황쌀’ 등이 판매된다.

또 물건을 실어나르던 지게와 벙침, 망태, 홀터 등 농부들이 사용했던

농기구로 남녘의 가을걷이를 연출해 소비자들의 옛 향수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성마케팅도 추진한다.

이밖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전남쌀로 지은 밥과 떡 무료 시식회를 개최하고 쌀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포장 1kg 쌀을 덤으로 드려 풍성한 남도의 인심도 함께 전한다.

전병덕 농협전남본부 경제부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브랜드쌀에 대해 백화점과 협의를 거쳐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lsh@

목포해경에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4척 가운데 1척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나포된 중국어선 133척 가운데 무허가는 49척으로 37%를 차지하는 등 무허가어선 비율이 5년만에 크게 급증했다.

목포해경은 총 나포횟수 무허가 어선 비율이 2004년 무허가 어선이 34%(47/139척)에 이르렀지만 2005년 27%(58/217척), 2006년 21%(43/207척), 2007년 14%(31/222척)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7%로 3배 급증했다.

/이상희기자 ischo@

**명성공인증개사**

016-611-3424

011-625-0510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  
안경점/호프전문점/찜닭  
점포앞 보도블록 300㎡ 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  
전문클리닉센타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미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석형 함평군수

# ‘저탄소 녹색행정’ 체계화 주력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력하고 주민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지금 세계는 산업화, 정보화의 시대로 지나 녹색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함평군이 지난 10여년간 군정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행정을 올해는 더욱 체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 ‘친환경 나비 쌀’ 명품화

이 군수는 관내 농·수·축산업과 제조업까지도 녹색행정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군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영농지도로 저농약, 무농약을 넣어 알보다는 질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 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나비쌀’을 국내 최고의 명품 파워 브랜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함평천지 한우특구를 내실있게 추진해 함평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다.

### 월야 산단 차질없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분주하다.

이 군수는 “특성화된 관광산업과 관광협력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 11회 나비축제, 돌머리 갯벌체험, 웅루토 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수준높은 행사를 잘 치러내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광·해보·월야면 지역을 개발해 진진지구로 지정, 민간의 투자동기를 유발하고 월야면과 광주시 광산구 일원에 조성될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새롭게 정비해 도·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구축해나



일궈낸 것”이라며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원활한 수산물 유통, 함평항 개발과 항로 조성사업 등을 서둘러 어민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지 함평’을 올래 성과를 내야 할 분야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사회 순회서비스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령인구가 29%인 전국 최장수군의 실정에 맞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생활관리사 파견 등 서비스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노인 일자리 적극 창출

이 군수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깊어지면서 지역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민이 함께 합과 지혜를 모으면 위기타개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해를 맞아 역동하는 환소의 기상을 받아 함평의 새로운 미래를 기꾸자”고 당부했다.

/함평=조성수기자 cs@

## 화순군 약초농가 25억어치 납품 계약

화순 약초농가들이 확실한 납품처 확보로 안심하고 약초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의 중개로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이 한국 인삼공사에 3억4천만원 상당의 건재

작약 42t을 납품키로 하는 계약을 두 기관이 맺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해 12월 생지황 48t(10억원 어치)를 비롯해 올해 연말 출하예정인 백출 40t(10억원 어치), 또 2012년 납품할 석창포 10t(2억1천500만 원 어치) 등 이번까지

총 25억5천500만 원 어치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생약농협 조합원들이 이기도 한 화순군의 약초농가들은 납품계약이 이처럼 잇따라 체결되자 판로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

## / 새 얼굴 /

### “원전설비 안전에 만전 … 신뢰 높일터”

심규열 현수원 영광 원자력본부장



“원전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 원전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심규열(57) 신임 한국수력원자력(HANWHA) 영광 원자력본부장은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화합 경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출신인 심 본부장은 한양대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입사해 방사성폐기물 사업부문 방폐물운영처장, 사업기술처 설계기술실장, 영광원자력 건설소 계획팀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정애씨와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영광=조의상기자 ischo@

### “지역 농산물 판매 모든 역량 집중”

김희태 농협 영광군지부장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희태(56) 신임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합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 하나되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김 지부장은 광주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81년 농협에 입사,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기획역, 전남지역본부 공제·자축추진·금융지원팀장, 동광양지점장, 구례군지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현옥씨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영광=조의상기자 ischo@

## 수완지구

###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문

#### 친절 상담 성실 중개

• 상가임대 : 35m 버스정류장 옆 월드메디컬센타 (최고요지) -1층 북충형 평당 1,400만

35m 버스정류장 옆 송원프리자 -1층 평당 1,200만 34.5층 평당 270만

• 상가분양 : 월드메디컬센타 1층 약국 특별분양 (이비인후과 입점 확정)

• 상가건물매매 : 승강장 옆 5층 건물 (대지 84평 전평 220평) 임대료 9억 매매가 12억 실 투자금 3억 (용자 가능)

• 금매물 토지 : 상업지역 35m × 6m 각지

롯데마트 옆 15m × 15m 각지

아파트 대단지 앞 15m × 15m 각지

근린생활시설 25m 길게 도로점

● 수완지구 내 최고 조건의 토지 다양 확보 ●

수완지구 중개전문 월드 공인중개사무소

062) 959-1033, 019-608-3372

※ 치료상담 및 설명회 일정 안내 |

광주